■ 독일, 음료수 용기에 대한 전과정평가 결과 발표

○ 독일 환경청은 전과정평가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재충진이 가능한 PET 병에 담긴 음료수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발표함

- 전과정평가 결과 재충진 가능한 PET 병이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종이, 재충진 가능한 유리 병 순이었으며 금속 캔과 일회용 유리 병이 가장 나쁜 것으로 밝혀짐
  -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독일 환경청은 소비자들에게 재충진이 가능한 PET 병에 담긴 음료수의 구매를 권장하는 반면 금속 캔과 일회용 유리 병을 사용하는 음료수의 불매를 권유함
- 또한 종이 용기가 재활용율이 높기 때문에 재충진 가능한 유리 병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
- 유통에 의한 환경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청은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을 요청함

○ 시장점유율 5% 이상의 모든 음용수 용기를 대상으로 한 전과정평가는 경제연구소, 환경연구소 및 포장재시장 연구기관 등에 의해 종합 수행됨

-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천연자원 사용, 지구온난화 기여도, 산성화 영향성 등이 선정되었음

○ 독일 환경청 장관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일회용 유리 병과 금속 캔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무 예치금[7]을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함

- 반면에 환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종이는 환경친화 포장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

이 광 원(kwlee@hri.co.kr, 02- 3669- 4310)

7) 1991년에 제정하여 1998년 개정된 독일 포장재 법은 재충진이 가능한 음용수 용기의 비율이 2년 동안 72% 이하로 낮아지는 일회용 음료수 용기에 대하여 무거운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음